

현대차그룹, 팬데믹 대응 ‘정몽구 미래의학관’ 개관

국내 첫 민간백신센터 준공
정몽구 사재 100억 기부 ‘결실’
감염병 연구 핵심 거점 등 역할
“국내 백신 개발·연구 인프라 구축”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기부한 사재 100억원의 결실인 ‘정몽구 미래의학관’이 문을 연 가운데 팬데믹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과 미래 감염병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1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전남 서흥성북구 고려대학교 의료원 메디사이언스 파크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고려대 의과대학 및 교우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몽구 미래의학관’은 고려대 의료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기부한 사재 100억원으로 조성된 ‘정몽구 미래의학관’이 16일 준공됐다. 사진은 준공식에서 참석한 정의선 회장의 모습.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이 설립한 첨단 의학 연구센터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미래 의학을 연구하는 공간으로 설계됐으며, 백신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유전자·세포 치료, 생물안전 연구, 디지털헬스 기반 정밀의학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유관 연구시설이 함께 입주했다.

정 명예회장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국내 백신 개발의 필요성과 연구 인프라의 시급성을 실감하고, 고려대 의료원에 사재 100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정의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몽구 명예회장님은 기업의 존재 이유를 국민의 행복에서 찾았고, 의료 인재 양성과 소외계층 진료 등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왔다”며 “이 건물이 백신 자립의 상징이자 세계 보건 위기 대응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헌정 명판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다. 건물 1층에 설치된 명판에는 “질병을 극복하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이곳 미래의학관이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정 명예회장의 메시지와 함께 그의 사진이 새겨져 있다.

정몽구 미래의학관은 연면적 1만211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다. 내부에는 백신혁신연구센터를 포함해 생물안전센터 및 실험실, 유전자세포 치료 연구개발 시설, 디지털헬스 기반 정밀의학센터, 첨단치료기술 연구개발센터 등 다수의 연구기관이 집약돼 있다. 감염병 연구에 필수적인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 시스템과 전임상 연구 플랫폼까지 갖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 명예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강조하며, 재단 설립과 사재 출연을 통해 의료·교육·문화예술 등 공익 분야 전반에 걸쳐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 60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아들에게 치료비는 물론 정서·학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순직 경찰·소방·해양경찰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몽구 스킨십’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할 미래 인재를 육성 중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강원도 계촌마을을 중심으로 한 ‘계촌 클래식 축제’를 통해 지역과 예술을 잇는 장을 만들고, 청년창업 분야에서는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와 ‘온드림 소사이터’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전남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지원방안 모색

중진공, 간담회에서 애로사항 청취
한국메이드 ‘도약 프로그램’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7일 전라남도 소재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조선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에 따른 현판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찾아가는 중진공’의 일환으로,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를 비롯해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과 조합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기업은 대부분 선박 건조, 부품 제조기업으로, 전기요금 증가에 따른 경영 애로가 가장 큰 공감대를 얻었으며, 외국 인력 양성과방안, E9 쿼터 향상 등의 현장의견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부처 건의 및 개선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진공 인력지원처에서는 현장의 인력애소 해소 및 외 기업인력애로센터, 외국전문인력사업 등의 맞춤형 인력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7일 전라남도 소재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조선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이날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 조선업체인 ㈜한국메이드에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첫 걸음을 기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현판 수여식이 진행됐다.

현장투어에서는제1공장의생산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유망 중소기업의 신시장·신사업 진출을 견인해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원정책이다.

(주)한국메이드는 전국에서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 중 하나로, 선박 부품, 건조, 수리가 가능한 전남의 강소 조선소이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56% 성장한 67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추진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전남은 국내 서부권 조선기자재 산업의 핵심 공급망이 집중돼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지역 조선업체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지속적인 동반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중기중앙회, 간편인증 ‘공제기금 비대면 대출’ 지원

네이버·토스·카카오 인증 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가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로,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1만7000여개사가 가입 중이며 지난해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그동안 공제기금 비대면 가입 및 대출 이용 시 본인 확인 수단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제한돼 있어 인증서 발급을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제기금은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직접 본인 인증을 받아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편리하게 공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공제기금은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도가 부족한 경우는 부금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도산담보(후순위 가능)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에서 최대 3%까지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어 금리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fund.kbiz.or.kr),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부진, 대외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구독신청
광고문의

(062)510-0471
(062)512-0100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